



■ 2025 제주문화지표 조사 결과

문화 시설 분포 대비 활용률 낮다

2021년 이어 4년 만에 실시
행정 자료 수집·인식 조사

신규 시설 조성보다 활용 우선
관광객 외 도민 이용 고려해야
문화 인력 기반 구조적 접근을
도민 구매력 높일 콘텐츠 필요

제주도민의 문화 향유 양상이 인
프라 수준에 비해 제한적인 것으
로 분석됐다. 문화 시설 지표가 전
국 평균 이상임에도 실제 활용률
과 참여 경험에 이에 상응하지 않
는다고 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이런 내용으로 14일 '2025년 제주
문화지표 조사 연구 결과 보고서'
를 공개했다.

이번 제주문화지표 조사는 2021
년에 이어 4년 만에 이뤄졌다. 이
번에는 7개 대분류에 따라 20개 중
분류, 71개(신규·변경 41개) 세부
지표로 구성해 문화 현황 데이터
를 구축하고 자료 분석에 나섰다.
행정 자료만으로 파악이 어려운
도민들의 문화 경험과 수요, 인식
등을 살펴보기 위해 제주에 거주
하는 만 15세 이상 도민 2020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도
민 인식 조사를 벌여 시사점 도출
에 활용했다. 주요 시사점과 제언
을 중심으로 2025년 제주문화지표
조사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문화 시설 확충과 도민 활용
경험=공공시설 기준으로 인구 10
만 명당 공연장 전국 7위, 미술관
전국 1위, 박물관 전국 2위 등 전
국 평균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이다.
주요 문화 시설이 지속적으로 확
충되어 왔고 시설 분포 측면에서
도 단위 평균 수준 이상의 접근성
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민 인
식 조사 결과 최근 1년 내 문화예
술 관람 경험률은 49.1%로 절반
이하였고 관람 유형은 영화(1순위
기준 23.6%) 중심으로 편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1년 내 오프
라인 문화 시설 기반의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행사 참여 경험이 있



다는 응답률은 23.6%에 그쳤다.

따라서 문화 정책의 우선순위를
신규 시설 확충보다는 기존 문화
시설의 활용도 제고에 두는 방향
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박
물관·미술관은 관광객 대상 관람
기능에 더해 도민의 일상적 이용
을 유도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프
로그램, 지역 연계형 기획, 반복
방문이 가능한 상설·교육 콘텐츠
를 확대해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 전환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문화 인력 양성·정책 기반=
제주는 예술활동 증명 건수(인구
10만 명당 435.5건, 전국 2위)와 문
화예술 활동 건수(인구 10만 명당
158.4건, 전국 2위)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문화예술 관
련 교육기관 수, 재학생 규모, 전
문 인력 배출 지표는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다. 문화예술 관
련 사업체 종사자 수 역시 활동
규모 대비 적은 수준(제주도 전체
사업체 종사자 수 대비 5.0%)으로
문화 활동이 단기 프로젝트나 일
회성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
음을 시사한다. 전문 인력의 외부
유출과 지역 내 인력 순환 부족은
장기적으로 제주 문화생태계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
다. 문화 정책이 반복적·단기적
성과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인력 기반에 대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

▷문화 활동과 문화 시장 간 연

계=제주는 인구 10만 명당 티켓
판매 수 1만9320건(전국 10위), 티켓
판매액 7억6197만원(전국 11위)
등 문화경제 지표 전반에서 상대
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 도민
인식 조사에선 문화예술 행사 관
람 방해 요소로 '관심 있는 프로
그램이 없어서'(26.7%), '관련 정
보가 부족해서'(24.1%) 등 '비용
대비 매력 부족'을 꼽았다.

이에 따라 도민의 구매 의사 결
정을 유도할 수 있는 핵심 문화콘
텐츠를 구성하고, 연간 편성의 공
백을 줄이는 방향으로 프로그램
공급을 안정화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이는 특정 장르나 단발성 행
사에 집중된 구조에서 벗어나 다
양한 취향과 수요를 포괄할 수 있
는 문화 선택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한편 '제주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의하면 도지사는 문화 자
원, 문화 인력, 문화 시장, 문화 활
동, 문화 향유, 문화 정책, 문화 수
요와 인식 조사 등 제주도에 맞는
문화지표를 개발하고 문화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
지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빠르
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을 반영하
려는 취지로 지난해 7월 조례가
개정되면서 문화지표 조사 주기가
기존 3년에서 2년 단위로 단축돼
작년에도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
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2026년
제주문화지표 조사를 시작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사찰에서 펼쳐는 치유·소통 춤 마당

한국무용가 손영신 기획·안무
이달 20일 김녕 금릉사 템플관
제주 푸다시 체험 등 관객 참여

제주 동쪽 마을에 자리한 사찰에서
특별한 공연이 펼쳐진다. 제주를 기
반으로 활동하는 한국무용가인 손
영신 댄스인제주무용단 예술감독의
'찾아가는 치유의 춤 쉼터 II'다.
이달 20일 오후 3시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금릉사 템플관.

'찾아가는 치유의 춤 쉼터'는 지
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올해는 '감
정'을 의미하는 '이모션스(Emo-
tions)'를 주제로 내걸었다. 관객
들이 보이지 않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다양한 감정들을
들여다보며 직접 무대 안으로 들어
가는 '이머시브' 공연으로 준비했
다. 공연장을 벗어난 사찰에서 춤
을 통해 지친 심신을 어루만지며



한국무용가 손영신. 댄스인제주무용단 제공

다음 여정으로 나아가갈 수 있는 새
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다.

이날 프로그램은 3부로 짜였다.
1부는 '마음을 열다'로 전통과 현
대가 어우러진 8개 춤사위를 만날
수 있다. 제주 연물 장단, 입담 소

리, 토속 민요와 함께하는 액은 퇴
치, 관객 참여형 '제주 푸다시' 체
험이 이어진다. 2부는 '비우고 담
다'로 금릉사 제용 스님의 마음 비
움 설법, 나만의 '단주 만들기' 체
험으로 꾸민다. 3부는 '함께 치유
하다'란 이름을 달고 출연진과 관
객의 몸짓 언어 소통, 라이브 민요
에 맞춘 강강술래와 즉흥춤, 이야
기 나눔이 잇따른다.

기획·안무를 맡고 공연에도 출연
하는 손영신 예술감독은 "춤으로
다독이지 못할 외로움과 상처는 없
다"며 "자연스러운 몸짓이 여러분
의 지친 마음을 녹여주는 따뜻한
위로이자 '춤의 쉼터'가 되길 소망
한다"고 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2026 예술
창작활동지원사업 선정작. 사전 예
약제(총 50명)로 운영한다. 공연
전인 오후 2시30분부터는 금릉사
오솔길 산책이 이뤄진다. 진선희기자

제주음악협회 제주음악제
중견·신진 '세대를 잇다...'
협주곡에서 아리아까지

제주 음악인들이 가을 향기를 실은
무대를 준비했다. (사)한국음악협
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가 펼치는
2026 제주음악제다. 이달 18일 오

후 7시30분 제주대 아라뮤즈홀.

이번 음악제는 '세대를 잇다-인
플루언스(INFLUENCE)'란 이름
을 달았다. 2026 제주음악제의 마
지막 일정이다. 중견 음악가와 신
진 음악가가 함께 참여해 음악적
교류와 울림을 선사하는 무대로 기
획했다.

출연진은 비올리스트 박현주, 오

보이스트 문희운, 바이올리니스트
정채린, 소프라노 최자연, 비브라
폰 주자 정한솔, 바리톤 김훈석, 플
루티스트 김수연, 소프라노 오능
희, 이들은 임대홍이 지휘하는 제
주제임버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
춰 브루흐 협주곡에서 푸치니의 오
페라 '토스카' 중 아리아까지 다채
로운 선율을 선사한다. 진선희기자

문화가 쏙지

▷문태준 시인 초청 제주문학학교
특강 '생명 세계와 나의 시'=문태준
시인의 시를 함께 살피며 생명 존재
들이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관계를
이해하고,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지 문학적으로 사유해본다. 10월 4
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제주문학
관 대강당. 참가 신청은 네이버폼
(https://naver.me/FmGtqaNM)
이나 전화(070-4115-1038).

▷제주도문인협회 제4회 제주청
년문학상 수상작 선정=젊고 역량
있는 청년문학도를 발굴하고 제주
문학의 새로운 세대를 육성하기 위
한 취지로 지난 8월 31일까지 작품
을 접수한 결과 총 107편이 응모했

다. 심사 결과 대상작은 내지 못했
다. 우수상은 송래마의 'blackat'
(시), 이민혁의 '드림캐처'(동화)
에게 돌아갔다. 가작은 송승범의
'도어슬랩'(소설), 강민경의 '금부
치와 사둔부주'(수필), 최민기의
'Hi Star'(희곡)가 선정됐다. 시상
식은 오는 12월 초 제주문학상 시
상식과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제29회 이중섭세미나
개회=전쟁과 가족에 중심으로 알려
져 온 화가 이중섭의 이미지를 넘
어 프랑스 표현주의와 스승 임용린,
초현실주의적 시공간 해석을 통해
이중섭 작품 세계의 조형적 뿌리와
현대적 의미를 짚어 본다. 이지호
전남미술관장의 '이중섭, 조르주

루오와 임용린을 만나다', 임금준
미술평론가의 '원초적 사랑의 아르
카디아: 이중섭 회화의 초현실주의
적 시공과 생동하는 붓질' 주제 강
연이 이어진다. 이달 17일 오후 3시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영화 '풍년의 아이들' 특별 상
영회=사유진 감독의 '풍년의 아이
들'은 제주4·3 당시 희생된 어린이
들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영화다. 이
번엔 극장을 떠나 제주4·3 희생자
들의 이름이 있는 장소로 향한다.
이달 16일 오후 7시30분 제주4·3평
화공원 각명비. 한편 이 영화는 오
는 10월 3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
리는 '국가폭력과 어린이' 주제 국
제 워크숍에 초청돼 상영 예정이다.

임용
강원대학교 생명과학과 전임교수

양미연
(이학박사)
(배우자: 강익진)

강원대학교 생명과학과 전임교수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새로운 출발과 함께
펼쳐질 빛나는 앞날을 응원합니다.

가족일동
(강여성, 오국희, 강명진, 김보성)

선정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미용분야 제10호)

강근희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미용분야 제10호)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송명화, 김영배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열독률·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 부터 17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미리' 품질인증 **01**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28·구독 750-2314·서귀지사 732-5552